S-C30

배우자에 의한 신이식과 비혈연 공여자에 의한 신이식의 생존율 비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윤혜은 · 형복진 · 황현석 · 전연주 · 이소영 · 최범순
양철우 · 김용수 · 김석영 · 장윤식 · 최의진 · 방병기

Comparison of Graft Survival between Spousal Donors and Living Unrelated Donors

Hye Eun Yoon, Bok Jin Hyoung, Hyeon Seok Hwang, Youn Joo Jeon, So Young Lee, Bum Soon Choi
Chul Woo Yang, Yong Soo Kim, Suk Young Kim, Yoon Sik Chang, Euy Jin Choi and Byung Kee Ba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목 적 : 생체 비혈연 공여자, 특히 배우자에 의한 신이식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에 의한 신이식과 배우자가 아닌 생체 비혈연 공여자에 의한 신이식의 생존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방 법 : 1987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강남성모병원에서 시행한 생체 비혈연 공여자에 의한 신이식 중, 이식 후 1개월 이내에 이식신 실패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445예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배우자에 의한 신이식군 (배우자 이식군)과 배우자가 아닌 비혈연 공여자에 의한 신이식군 (비혈연 이식군)으로 나누어, 두 군의 임상적 특징과 이식신 생존율 및 환자 생존율을 비교하였다.

결 과 : 배우자 이식군은 77예 (17.3%), 비혈연 이식군은 368예 (82.7%)이었다. 배우자 이식군 중 공여자가 남편인 경우는 19예 (24.7%), 부인인 경우는 58예 (75.3%)이었다. 평균 HLA 불일치 개수가 배우자 이식군이 비혈연 이식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4.2개 vs. 3.4개, p=0.000), HLA 불일치 개수가 4개 이상인 예가 배우자 이식군이 비혈연 이식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았다 (83.1% vs. 44.4%, p=0.000). 이식 시 수여자의 나이는 배우자 이식군이 비혈연 이식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42.1세 vs. 39.4세, p=0.021). 이식 후 조기 신기능 회복을 보인 예는 배우자 이식군이 비혈연 이식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46.8% vs. 74.2%, p=0.000). 이식신 생존율은 두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p=0.236), 환자 생존율 또한 두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351).

결 론 : 배우자 공여자에 의한 신이식은 HLA 불일치 정도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체 비혈연 신이식과 유사한 이식신 생존율을 보이므로, 배우자는 중요한 신공여자 군에 속한다.

Key Words : 배우자 공여자, 비혈연 공여자, 신이식
Spousal donor, Living unrelated donor, Renal transplantation